

19.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는가?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9절 "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의 책을 중심으로 주님께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 인격체이신 주님을 아는 것을 대신해 버린 죽은 정통주의 즉, 거짓 신앙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느냐? 이것을 보면 주님을 아는데 어떻게 주님을 더 알 것인가? 부분도 좀 더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문맥을 보시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지도자들을 가리키고 그 종교지도자들 중에서는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 혹은 종교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들은 실로 성경을 상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교리적으로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되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것이 포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했지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기를 거부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인격체를 아는 것을, 생명은 인격체이며 그 인격체를 아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임을 말해주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수단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잘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이 죽은 정통주의로서 바리새인적인 신앙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본문에 의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나눌 수 없을 만큼 연결되어있습니다.

불가불의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교하셨습니다. 양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혹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목표를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양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7절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시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지상에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표입니다. 아멘.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표인데 이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필수가 무엇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전체에서 양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이방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친밀한 관계로 이끄시기 위하여 필수가 무엇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를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전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알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호와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보면 신앙이 율법주의로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죄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그 직분을 무엇을 위하여 감당하느냐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감당합니다. 재물을 드릴 때에도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자기들이 취하고 재물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재물을 드리기도 그 많은 재물들이 자기 것으로 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체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많은 죄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타락할수록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가리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리어집니다. 사무엘서 3장에 보시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인줄 세 차례나

물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셨냐고 물었습니다. 안 불렀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이 세 번째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가서 그 음성이 들리거든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 하시기를 **"너와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섬기리라"** 고 말씀하셨다고 약속하셨다고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가 무엇이고, 자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점점 타락해지면서 더 이상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꾸짖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안된다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말씀 드린 대로 자기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보다 하나님의 언약제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을 만큼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지 아니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거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기니까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의 육신적인 눈이 멀었다고 그랬는데, 한 편으로는 그의 육신적인 눈이 멀은 것이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했던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두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교육을 받지 아니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젖 떼 후에서부터 자라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교육을 그가 처음으로 받았다면 그러면 그날 밤에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에 관해서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나면?**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교리를 그대로 교육받아서 그대로 이론적으로 긍정한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죄의 용서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막연히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체인 것을 다 인정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지 아니합니다. 그저 막연히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막연히 하면서 그것도 하

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기 보다는 많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신앙의 규칙들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막연히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가 열리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차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 봤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여러분 다 못 참석하신 분들은 테이프 곧 준비될 텐데 여러분 들으시고 또 하나님 음성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실 무엇보다 하나님 음성듣기를 사모하기보다 실제로는 주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음성보다도 주님에 있어야 합니다. 인격체이신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들으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한번도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용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코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눈도 나오고 코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처럼 물리적인 코와 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듣기도 하신다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용을 본단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게 그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막연히 있는 신에게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 그 막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이 자기들의 삶에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일반종교화 시켜 버립니다.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이게 타락한 전혀 하나님에게 나온 게 아닌, 실제로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특별히 3가지를 계시하십니다.** 저는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것을 잘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뭘 계시는가?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시죠. 5절-9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와 이름은 반포하실 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여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뭘 읽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읽습니다. 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여손 삼대까지 그 악을 갚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날 모세가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 모세 앞에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경험한, 혹은 발견한, 혹은 본 모세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 하나님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세요. 우리는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이 그런 것을 아세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데 갑자기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스랍들이 날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앞에 엎드려, "오호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 구절을 이야기 할 때, '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요. 우주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므로 그 주위에 스랍들이 날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웁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사야가 그날 경험한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주권자, 주재자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지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닮은 하나님!'

우리가 다윗장막 기도하는 것 보니까요 여주봉 목사가 '여호와 닮은 하나님' 을, 그러니까 깃발을 들고, '여호와 닮은 하나님' 을 세상에 전파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여호와 닮은'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닮은' 라는 말은 '하나님이 깃발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 그 말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근데 닮은 말은 깃발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여호와 닮은'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로써 '승리하신 하나님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원래 '여호와 닮은' 의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말렉과 전쟁

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를 편하게 넓은 의자에 앉히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손을 들어서 이길 때까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뭐를 경험했는줄 아십니까?

군대가면 깃발 있잖아요. 군대를 상징하는. ‘하나님이야 말로 이스라엘의 깃발이라는 것’ 입니다. 하나님이야 말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써,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므로, 그들을 위해 싸우사, 그들을 위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날 ‘여호와 닛시 하나님’ 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닛시’ 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배운게 아니라, ‘여호와 닛시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 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이레’ 라는 말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라’ 또는 ‘준비하시는 분이라’ , ‘공급하는 분이라’

God Provide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저요!” “저요!” “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요”

“네, 맞았습니다. 덩동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날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을 알게 된 것은 이론적인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죽여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이 걸린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명령대로 모리아 산까지 가서, 단을 쌓아 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단하지 않으셨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중지시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함을 알았다”

그러며 뒤를 돌아보라고 그러니까, 솟염소가 뿔이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잡아들이라는 거죠.

뭐니까? 하나님이 미리 제물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드릴 제물을 미리 예비해 두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7절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 원어로 ‘지혜와 계시의 영’ 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이 말은 ‘성령’ 도 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영’ 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정신’ 이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 ‘인간의 영’ 이라고 이해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이라고 번역해도 옳습니다.

저는 왜 그럼 이 개역성경이죠, 개역성경 학자들이 왜 이것을 인간의 영으로 번역했느냐? 이해할만합니다.

왜요?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건데,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한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신데,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신데 무슨 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번역하니깐 훨씬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중에 NIV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바로 그 성령에 대해 말하면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번역해야 훨씬 옳습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번역에도 새로 나온 번역은 “지혜와 계시의 영” 으로 그냥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교회 가서!

우리 화요모임 나와서 은혜 받으신 분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구역예배에

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 고 기도를 부탁하니깐,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라잖아요, “집사님, 여태까지 하나님도 몰라~~~” 그러더라잖아요.

오늘 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잘 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그게 죽은 전통주의입니다.

죽은 전통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안일하다’ 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해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는데, 우리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이니까요.

영적전쟁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전체가 영적전쟁의 책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만 영적전쟁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 전체가)영적전쟁의 책입니다. 에베소 지역 바로 외곽에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요, 초대교회 당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전체가 아데미 신전에 나와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물건 팔아서 먹고 살았습시다.

그만큼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우상숭배가 가득했는지, 사도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손수건만 닿아도 귀신이 쫓겨 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귀신들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온갖 신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다 붙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했거든요.

복을 빌 때도 온갖 종류의 신들의 이름을 다 대면서 복을 빌었어요.

혼합주의가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그 당시의 문헌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효과 있는 것 같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효과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달려들어 가지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가지고 달려들어서 그 일곱 사람들이 그 귀신들린 사람에게 얼마나 얻어터지고 죽을 뻔했는지 웃을 다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퍼진 겁니다. 왜 퍼진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것처럼 혼합주의적인 사고가 전체에 깔려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혼합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퍼지게 한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태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부적이라든가, 그러한

종교에 쓰이는 책들, 이러한 책자의 그 값이 은 5만이었다고요. 은 하나가 한 장정의 하루 품삯인데 한 사람이 일당 3만원 받는다 그러면 1억5천만원이나 되었다고요. 그 값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다 태운 물건이 그만큼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바울이 편지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모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요. 모든 영적전쟁의 승리의 비결도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에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4-15) 그러면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19)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식으로 그 사랑을 아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뭘로 아는 겁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저들이 깨닫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저들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케 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필수적인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부은바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되어졌습니다. 그 사랑은 우주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의 중심으로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알면 부분적으로라도 알면 우리는 어떠한 난관과 역경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아는 것 그게 주님을 아는 겁니다. 사랑을 아는 것 그게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아는 것, 주님의 목적을 아는 것, 주님의 길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심을 따라 그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주의 형용을 본다는 말입니다. 주를 본다는 말입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후서 3장을 읽어보시면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는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처럼? 지성소에는 아무나 접근하지 못했던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옮겨와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휘장을 두르게 했어요. 가려워졌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받혀 돌아가실 때에 바로 지성소 앞에 있던 그 휘장이 반쪽으로 찢갈라진 것처럼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사람들에게 개방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그 사이로 하늘의 보좌가 열리게 되어졌다는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휘장이 걷히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형용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형용을 보는 만큼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을 변화되게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약시대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 잘 못입니다. 주님을 안 찾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심각한 죄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우리에게 개방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계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두개가 같이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도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언의 기름부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은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은 삶이 안 변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나 심각한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심판하시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며” 이러한 자들도 심판할 거라 그랬는데 이들은 주님을 주라 불렀고 주의이름으로 사역하되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도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구별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통적인 것은 삶이 안 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잘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깜깜해요. 그건 친밀함이 없는 겁니다. 그건 친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될 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것이 같이 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자라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 속에 부여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고요. 상고한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외웠습니다. 모세오경을 외우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안 거했대요. 아이러니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했는데 그 말씀이 속에 안 거했대요. 얼마나 큰 아이러니 입니까? 사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혹은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 시편 119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선 여기에 보시면,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함에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하기를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지라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거짓신앙체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요 그렇게 되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너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것을 제가 강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잘 배우는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부수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또 다른 극단입니다. 제가 그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죽은 정통주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깨뜨려져야 되니까 강조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게 전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시편기자를 보면, 여기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히 여기고 가까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반대되는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소중하되 그것과 같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 119편에 보면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시편 119편은 어떤 성경이라구요?(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첫글자 따서 계속 첫 글자대로 시가 씌어집니다.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그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입니다. 여기 먼저 보시죠. 2절 보세요. “여호와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의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NIV성경 참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인격체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는 것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그 말씀을 나름대로 잘 순종하면 그들이 참다운 신앙생활 할 줄로 생각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잘 연구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전혀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게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10절도 보십시오. 전체가 사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 보십시오. 주의 계명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세 가지를 구했더라고요. 사실, 보시면요 시편 119편 전체가 기도입니다. 보시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하소서, 기도입니다. 전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뭘 구했느냐?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구했구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했구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를 구했구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를 구했구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하다고요. 여기 보십시오. 아까 2절 읽었지요. 지금 10절 읽었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마음을 다해 구하는 것과 말씀이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1절 보십시오. 그리고 3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와 그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3절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 영어성경에 보면 더 선명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의 웨이(way). 그들의 길 행하는 길, 그들의 방법 이러한 것들이 흠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NIV 참고) 주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법의 길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은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길 가운데 행한다(NIV 참고).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119편에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여 그 길 가운데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전체가 그저 말씀을 잘 연구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더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두개가 나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때 말씀이 속에 거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그랬다간 이단이라고 난리가 날겁니다. 당연히 이단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주장과 우리의 원하는바 우리의 추구하는 바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많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너무 너무 드뭅니다. 말씀이 거하지 않은 것 똑같습니다.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모르는 것과 요만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이론적인 교리의 고백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보시면, 이 저자가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여기고 묵상하고 상고하되 말씀 그 자체 이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기를 원하여 그리고 그 길에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했고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함으로 젊은이도 세상과 구별하여 의로운 삶을 사는게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보세요.(NIV 참고) 당신의 규례, 법도의 티칭을 이해하게 하소서. 티칭을 이해하게 해달라는게 뭐예요. 그 목적을 이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중을 이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을 이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령의 의중을 이해하게 하소서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가까이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소중히 여기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 분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고, 그 길 가운데 행하기를 추구했습니다. 그 길 가운데 행하므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추구하고 열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리새인과는 다른 자세입니다. 똑같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리새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경우는 너무 너무 많지만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경우는 너무 너무 드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알기를 구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하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오금동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저녁에 요한복음을 읽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방법이 선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가서 그 구절들을 정리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새워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만을 행하셨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이 하신 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령 제가 그 책을 보았다 하더라도 남이 보고 배운 것을 보고 습득한 것 하고, 실제로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한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곧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는 못합니다.

제가 쓴 십자가의 복음도 마잖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교하기 시작하고, 전하고, 나누기 시작하고, 점점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 세우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당에서 하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분당에는 한 번도 온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포도나무 교회로 하라~’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존재로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분의 행하심을 보고, 그분의 행하심을 온 삶으로 동참하여 가면, 그 분이 그 분의 능력과 자원으로, 그 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사역인데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표를 냈는데 제가 돈이 없다고 그랬잖습니까? 그 당시 생활비가 백만원 들어갔습니다. 분당에 집을 얻으려면 단독 주택 지역에서만 전세로 얻으려고 해도 5천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단돈 백만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내내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그 분이 행하실 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3천만원 현금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생겨서 계약도 했습니다. 분당에 딱 한번 와서 이 건물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건물 3층을 주신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입주가 늦어져서 시간이 좀 있었는데 주택은 계약을 해서 1개월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잔금으로 3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돈이 없으면 길에 나가 앉으면 되는데 이제는 돈이 안오면 길거리에 나가 앉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간 계약금까지 떼일판입니다.

또 그 전에는 사표를 내서 집을 비워달라고 했어도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것은 계약서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 와~, 도와 줄 사람도 없는데 시간이 너무 잘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 꾸러 다니면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어오느냐 하면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할 때 개인적으로 저를 많이 섬겨준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3천만원만 꾸달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느냐 하면 사역은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이름도 포도나무 교회로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집사님 3천만원만 꾸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그 집사님께서는 ‘여태까지 강단에서 설교한 것은 다 가짜여, 그러면 안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그분에게는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것을 무효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리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가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더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간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텐데 왜 그렇게 시간이 안가요.

속에서 무슨 말이 뽀글 뽀글 올라 오느냐 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 말만 하루 종일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잔금 날짜가 이를 남았는데 밤 11시에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3천만원 현금 하겠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세워지는 가운데 2억의 돈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뒷받침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분과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기를 열망하는 가운데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비춰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길에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포함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더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선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자만하여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알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

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울이 나이가 늙어갈 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았듯이 우리의 소망이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 수록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는 상관 없이 나이가 더 들어 갈 수록 이전 보다 더 깊이 주님을 아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자리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